

## 自由詩\_황석우

自由詩의 발상자는 신체시다. 자유시 以前의 在한 西詩는 音數 體裁 등에 관한 複雜한 怪難한 法則에 지배되어 있다. 알렉산드리아調의 12綴音의 法則과 같은 그 현저한 例다. 이것은 ‘一行一段 落制’라 할 法則이 없다. 이 法則에서 一行에 包하는 意味는 次行에 及치 不함을 그 原則으로 하였다. 곧 그 行行이 各各 ‘意味獨立’을 保치 不함도 안되었다. 이런 不自由의 外的 專制律이 詩人의 自由奔放의 情想을 抱束 압박하여 왔다. 近頃 우리의 흔히 듣는 ‘안잔부민’<sup>1)</sup>이란 語는 이 時代의 土産語品이다. 곧 彼 法則에 反對시는 ‘안잔부민’이라고 呼하였기 때문이다. 이 專制詩形에 反抗하여 立한 者는 곧 自由詩다. 자유시는 그 律의 根底를 個性에 置하였다. …近日 歐美와 日本에서 自由詩의 이름이 生함은 三富朽郎<sup>2)</sup>의 자유시 운동으로부터 始한다. 律이라 함은 이 自由詩의 或 性 律을 이름이다. 이 律名에 至하여는 사람에게 의하여 各各 個 內容律, 或 內在律, 或 內心律, 或 內律, 心律이라 呼한다. 그러나 이는 모두 自由詩 곧 個性律을 形容하는 同一意味 말이다. 나는 此 等 種種의 名을 包括하여 單히 ‘靈律’이라 칭하려 합니다.<sup>3)</sup>

1) 朴琪烈, “音韻論,” 「英詩概論」, 英美詩文學叢書, 3, (서울: 新丘文化社, 1993) pp. 101~102. 1. 안잔부민—enjambement(ǎzǎbmǎ): “run-on-line”과 동일 의미. “Metre와 함께 Pause도 음과 마찬가지로 리듬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짧은 시행으로 된 서정시는 대체로 일행이 “breath-group”을 이루고 끝에 Pause가 있다. 그러나 행말에서 뜻이 완결되지 못하고 휴지가 없이 계속 읽어야 하는 시행도 있는데, 이것을 “run-on-line”이라 하고 행말에서 뜻이 완결되어 있는 시행을 “end-stopped-line”이라 한다. 그리고 음절이 많은 비교적 긴 시행에서는 Pause가 시행의 가운데(within the verse)에 오는 수가 있다. 이것을 중간휴지(Caesura)라고 한다. 이것은 行中の sentsnce 또는 phrase의 끝에 있는 것이 보통이다. 대체로 스트레스가 다섯 개 있는 시행에서는 둘째 혹은 셋째 스트레스 다음에 Caesura가 오고, 여섯 개가 있는 시행에서는 셋째 스트레스 다음에 오고, 스트레스가 일곱 개 있는 것에는 넷째 스트레스 다음에 오지만 특히 드라마나 혹은 사색적인 독백에서는 그 위치를 자유롭게 바꿈으로써 의미와 리듬에 미묘한 강조와 변화를 가져온다. 그리고 약강조 5보격의 시행이 각운 없이(unrhymed iambic pentametre) stanza를 이루지 않고 연속되는 시행을 “blank verse”라고 한다. 각운의 구속이 없어서 산문에 가까운 자유로움이 있으므로 특히 극시와 설화에 적합하고 중간휴지의 위치가 자유롭고 행말이 빈번히 구결치기(run-on)를 함으로써 리듬의 변화가 미묘하다.” 2. 한시(漢詩)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跨行(과행, enjambement)이라고 한다. 즉, 每句(매구)가 반드시 一行(일행)이 되는 것은 아니고, 句(구)가 완성되지 않았는데도 다시 일행이 시작되는 것을 跨行(과행)이라고 한다, 每行(매행)이 또한 반드시 一句(일구)를 이루는 것도 아니다.

2) 三富朽葉의 誤記인 것 같다. 三富朽葉(みとみ きょうよう), \*朽葉のヨミを「くちは」とするものもある. 1889. 8. 14(明治22)~1917. 8. 2(大正6). 長崎県壱岐出身. 本名は義臣. 道臣・マツ(共に同墓)の長男. 父は壱岐石田郡長を務めた人物. 1896(M29)4月、7歳の時に渡良村の三富本家の伯父三富浄の戸籍上養子となるも、同月、実父母と共に上京した.

フランス系列の暁星中学校に入学し、このころから「新小説」「文庫」などに短歌や詩を投稿した。早稲田大学高等予科文学科に入学し、西条八十らと雑誌「深夜」を発行。1908(M41)早稲田大学英文科へ進学。'09人見東明、加藤介春、今井白楊、福田夕咲らと「自由詩社」を結成し、口語自由詩を唱道した。象徴主義の影響を受けた倦怠的・耽美的な詩を、機関誌「自然と印象」、「早稲田文学」等に発表し、その口語散文詩は、先駆的作品として評価された。'10頃からマラルメやランボー、ヴェルハーレンなど19世紀末のフランス近代詩人の影響を受け、フランス象徴派詩人の研究や翻訳を行なった。'17(T6)あと12日で28歳の誕生日を迎えることになったであろうその年の夏の日、詩友の今井白楊と避暑のため訪れた三富家別荘のある犬吠岬崖下、君ヶ浜で遊泳中、高波にさらわれ今井白楊と共に溺死した。

没後、'18実父の三富道臣により哀切の文字を刻んだ「涙痕之碑」が千葉県銚子市犬吠崎君ヶ浜灯台下に建立された。また、'26文学の友であった増田篤夫によって編まれた遺稿集『三富朽葉詩集』が発表された。この詩集は三部立てになっており、「第一詩集」は、自由詩社結成後2年あまりの間に発表した作品が主。第二詩集「螢み」は象徴詩人の面目が色濃く現した。第三詩集「生活表」は、象徴主義の深さを感じさせる散文詩が収められており、口語散文詩の先駆といわれた。

3) 黃錫禹, “朝鮮詩壇의 發足點과 自由詩,” 「毎日申報」, 1919. 11. 10., 韓啓傳, 「韓國現代詩論研究」(서울

---

: 일지사, 1983), p. 32에서 재인용.